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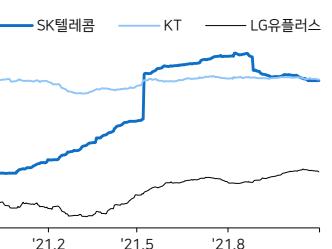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0	0.4	-9.2	-7.1	10.7	10.7	1.2	1.2	1.7	1.7	
통신업종	-0.2	-0.1	-2.0	0.3	8.6	8.6	0.8	0.8	3.8	3.8	
SK텔레콤	0.0	-1.9	1.3	-0.8	8.9	7.8	0.9	0.8	3.3	3.5	
KT	-0.2	-3.6	-9.1	3.7	8.0	7.4	0.5	0.5	5.3	5.8	
LG유플러스	-1.4	-4.4	-3.1	0.7	8.6	7.8	0.8	0.7	3.7	4.2	
AT&T	-0.6	-8.1	-10.2	-22.6	7.5	8.0	1.0	1.0	8.3	7.7	
Verizon	-1.4	-4.2	-5.4	-11.9	9.7	9.7	2.7	2.3	4.9	4.9	
T-Mobile	6.6	-1.5	-13.8	-11.7	51.8	38.6	2.2	2.1	0.0	0.0	
NTT	0.9	4.1	15.2	13.7	13.0	10.2	1.4	1.4	3.2	3.4	
KDDI	-4.0	-4.6	3.4	2.1	12.1	11.7	1.7	1.5	3.5	3.7	
Softbank	1.6	4.4	-8.3	-37.9	2.8	6.4	1.4	0.9	0.7	0.7	
China Mobile	0.9	2.7	-1.0	-2.6	7.2	6.8	0.7	0.7	7.5	8.1	
China Unicom	-1.2	-0.3	-7.0	-12.4	6.7	6.0	0.3	0.3	7.4	9.1	
China Telecom	-3.6	1.5	-9.6	-7.7	7.4	7.0	0.5	0.5	8.1	9.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3.9% (Flat WoW, -0.6%p MoM)

KT 44.0% (-0.1%p WoW, -0.2%p MoM)

LGU+ 34.1% (-0.1%p WoW, +0.1%p MoM)

KT,LGU+ 외국인 지분율 감소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11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2%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LG유플러스 3Q21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
LG유플러스의 배당성향 상향이 공식화될 경우 외인 수급 개선에 따른 주가 회복 전망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LGU+순매도. 외국인은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KT와 SK텔레콤이 각각 9일, 10일 3Q21 실적발표 예정
KT와 SK텔레콤 모두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 전망
바이든의 1.2조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가결로 5G 업종 센티멘트 개선 전망
5G Top-Picks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서진시스템과 미국 인프라 예산 수혜가 기대되는 대한광통신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2	3	4	5	LGU+ 3Q21 실적발표
7	8	9	10	11	12	13

3 주간 뉴스

▶ 바이든 "1조7500억달러 복지법안 통과시킨다"

(파이낸셜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이하 현지시간) 1조7500억달러 복지법안 통과를 약속
- 전날밤 하원의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복지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
- 인프라 법안은 전날밤 우여곡절 끝에 하원에서 228-206으로 통과, 민주당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란표
⇒ 미 정부는 당초 1인당 45만달러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액수를 소폭 조정 중
- ⇒ 바이든의 1.2조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가결로 미국 5G 투자 확대와 함께 5G 업종 센티멘트 개선 전망

▶ 박정호 SK ICT 위원장 "SKT 메타버스 필요 기술, SK스퀘어가 지원"

(전자신문)

- SK그룹은 3일 'SK ICT 테크 서밋'을 개최하고 메타버스/AI/클라우드/모빌리티 관련 기술 현황을 공유
- SK스퀘어는 메타버스 '이프랜드' 생태계에 필요한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주요 과제로 선정
- SK텔레콤은 국내 1,0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이프랜드 입점 to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
- ⇒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약 560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13.1% 성장, '24년 916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
- ⇒ SK텔레콤, VR 디바이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메타버스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적극 추진 중

▶ 5G 특화망, 외국인 지분 49% 초과해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가능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를 통해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더라도 5G 특화망 관련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
- 또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 외국인 5G 특화망 기업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있게 변경
- ⇒ 이번 규제완화 방식은 통신사를 제외하고 적용,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조치
- ⇒ 한편 국내 통신사 주가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지분율과 동행. 올해 주요 지표 반등과 함께 지속 상승 중

▶ 삼성, 시에나와 글로벌 5G 연합 . . . 네트워크 매각설 잠재우나

(서울경제)

-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3일 미국 광통신 부품사 시에나와 5G 솔루션 관련 협약을 체결
- 삼성전자의 5G 원거리 통신망에 시에나 엑스홀 라우터를 결합해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할 계획
- 시에나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로 AT&T·BT·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 중
- ⇒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5G 장비 시장 6~7위권이 협력 체계를 형성(삼성 3.2%, 시에나 2.9%)
- ⇒ 삼성이 5G 사업 전개에 속도를 붙이면서 최근 제기된 네트워크사업부 매각설이 잠잠해질 전망

▶ 美 이통사들, 항공안전 우려에 5G 중저대역 서비스 연기

(조선비즈)

- AT&T와 버라이즌, 내달 5일 출시 예정이었던 5G 이동통신 중저대역 서비스를 내년 1월로 연기
- 5G 신호가 항공기 조종석 안전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 통신 업계는 C-band 주파수 대역 사용이 이미 4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반박 중
- ⇒ 5G 중저대역 서비스 출시 한 달 연기가 당장 양사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
- ⇒ 다만 이미 C-band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만큼,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

▶ 보잉,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허가 획득 . . . 글로벌 위성통신 경쟁 가열

(전자신문)

- 미국 보잉,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시작을 위한 사업허가 획득
- FCC는 2016년 보잉이 최초 위성통신 계획을 제출한 이후 5년 만에 구축/배치/운영 신청 승인
- 보잉은 132개 저궤도 통신위성과 15개 비 저궤도 위성을 혼합해 V-대역을 사용할 계획
- ⇒ 보잉은 자체 통신위성을 이용해 항후 상용화할 다양한 비행체에 통신기능을 옵션 제공 가능
- ⇒ 통신서비스와 무관한 기업이지만 저궤도 위성을 통해 항후 통신 분야에 치·간접적 진출 기대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09,500	18.8	16.5	17.1	1.3	1.4	2.2	2.4	4.9	5.1	5.8	5.6	10.4	10.8
	KT	30,450	6.7	20.8	21.4	1.3	1.4	0.8	0.9	4.4	4.6	2.7	2.6	7.1	7.3
	LG유플러스	14,150	5.2	11.7	12.2	0.9	1.0	0.6	0.7	2.9	3.0	3.6	3.5	9.5	9.9
미국	AT&T	25.1	179.2	168.2	155.5	29.4	31.2	23.6	21.9	52.4	50.9	6.8	7.0	13.4	12.5
	Verizon	52.2	216.3	133.4	131.7	32.4	32.8	22.5	22.3	48.4	49.2	7.4	7.3	29.8	26.1
	T-Mobile	122.7	153.2	80.1	82.3	7.1	9.0	3.1	4.2	27.1	28.2	8.4	8.1	4.5	4.9
일본	NTT	3,236	111.3	108.2	106.1	15.1	15.3	8.4	9.8	29.0	28.8	6.6	6.4	10.8	14.5
	KDDI	3,451	70.1	48.5	47.6	9.6	9.3	6.0	5.9	16.3	15.9	5.3	5.2	14.5	13.8
	Softbank	6,209	94.4	50.9	53.4	49.9	9.2	37.1	13.0	50.0	8.6	5.1	28.7	39.3	15.1
중국	China Mobile	48.7	128.1	131.8	139.6	18.7	20.0	17.9	19.3	48.1	50.5	1.2	1.1	9.7	9.8
	China Unicom	4.0	15.6	50.9	53.9	2.0	2.3	2.3	2.6	15.2	15.9	0.8	0.8	4.5	4.9
	China Telecom	2.6	56.1	67.9	72.9	5.3	5.8	4.0	4.4	19.8	20.9	2.6	2.4	6.6	6.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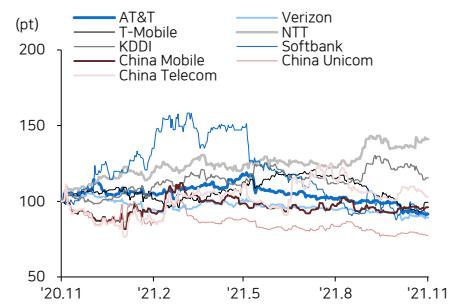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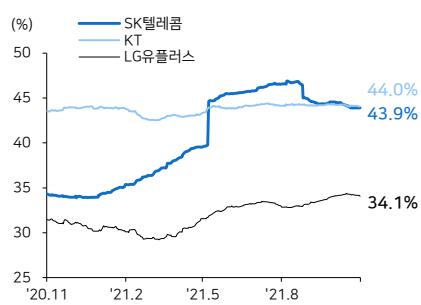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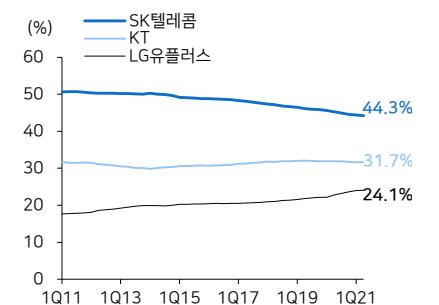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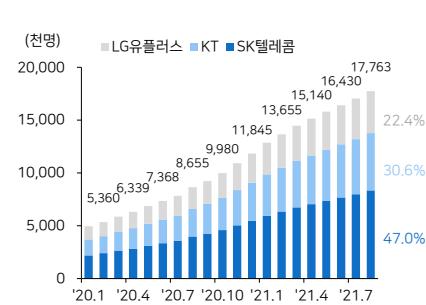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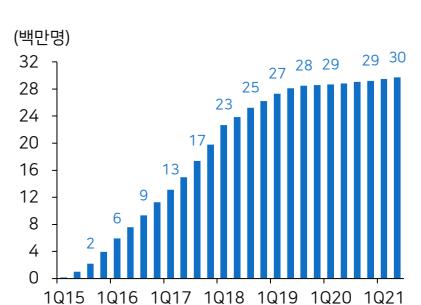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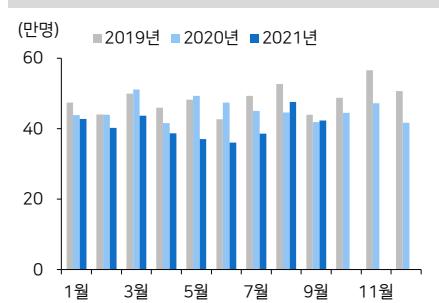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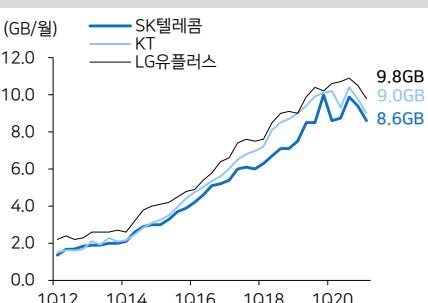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